



[유통 만행들의 경영전략]
롯데쇼핑, 과거방식 버려라
오프점포 폐쇄,
온라인 혁신 사활
04



Economy

코스피	2211.95 (0.00)	코스닥	672.63 (0.00)
금리 (미국 3년)	1.28 (-0.03)	환율 (원/달러)	1186.50 (+6.70) (7일)

지정 감사제로 상장사 '비적정 의견' 급증 예고

내달 회계發 증시퇴출 '주의보'

지정회계감사 나서는
내년에 꼬투리 잡힐라
한정·비적정 의견 급증
상장폐지 등 피해 우려

코스피 시장주기적 지정대상기업

회사명	시가총액
1 삼성전자	293조4,148억원
2 SK하이닉스	58조2,402억원
3 신한지주	19조6,082억원
4 KB금융	17조5,398억원
5 삼성생명	14조600억원
6 S-Oil	11조4,272억원
7 엔씨소프트	11조3,283억원
8 카카오	11조3,224억원
9 삼성전기	8조3,657억원
10 롯데케미칼	8조2,261억원

시장에서는 이례 없는 주식시장
퇴출이 일어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

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
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
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
는 제도다. 2016년 대우조선해
양 분식회계의 원인으로 부실
감사가 지목되며 재발을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차기 감사
수임 건으로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회계법인의 '보주
기 감사'를 사전에 차단해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은
39곳이며 여기에 추가로 4곳에
대한 등록심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인 지정제로 회계감사가
까다로워졌다는 정황은 수치로
증명된다. 감사인 지정제 법률
개정안이 2017년 국회를 통과
한 직후 실시한 외부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
은 33곳으로 전년(25곳)보다
32% 늘었다. 지난해는 43곳까지
증가했다. 주요 비적정 의견 사
유는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제시하는 '감사범위제한'과 '계
속기업의 중요한 불확실성'으로
집계됐다. **<4면에 계속>**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외부감사인의 고강도 회계감사
를 앞두고 상장사에 비상이 걸
렸다. 해당 회사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 역시 마찬가지다. 주기
적 감사인 지정제로 회계법인을
교체한 상황에서 감사인의 '비
적정 의견'이 대폭 늘어날 것이
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스닥

社告

미디어의 새 길 메트로와 함께!

2002년 월드컵의 합성과 함께 태어난 메트로신문은 지난 2015
년 11월 '뉴메트로 선언'에 이어 2018년 3월 유가지 <메트로경
제>의 동시발행 등을 통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
면서 미디어 업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
과 메트로경제를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는 매체 다변화 시대를
적극 주도하기 위해 온라인과 지면의 동시발행이란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기사, 인공지능(AI) 도입
등 개방형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메트로는 독자
들과 함께 하며 뉴미디어 시대를 선도할 계획입니다. 18년 역사
의 메트로와 함께 언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인재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수습기자 채용 안내 -

- 모집부문: 취재(뉴메트로 공채 6기 수습기자)
- 모집내역: ①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취재 역량평가 ▲3차: 면접(블라인드 방식)
- ② 모집인원: 0명
- ③ 응시자격: 대학 이상 졸업자(2020년 2월 졸업 예정자 응시가능) <공통사항> ①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②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청년내일채움공제 해당자 우대
- 제출서류 ① 지원서 1부(☞ 본지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② 졸업증명서 1통, 석·박사 학위증명서(해당자)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2장(지원서와 수험표 부착)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②③항의 서류를 면접 시 제출
- 원서접수 ① 기간: 2022년 2월 4일(화) ~ 2022년 2월 19일(수) ② 접수방법: e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2월 19일 도착분) ③ 접수장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18(옥인동) ㈜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앞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월 21일(금) 본지 웹 사이트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타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시험관련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로 문의 (전화 02-721-9826)



전미주지사협회 리셉션에서 축하하는 정의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전미주지사협회(NGA) 동계회의 리셉션에 참석해 축하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연합뉴스

中 공장 재가동 'D-day'... 생산량 회복은 글썽

테슬라·폭스콘 등 가동 선언
삼성·LG 디스플레이도 재개
14일 격리 근로자 2.8억명
근로자 모두복귀 쉽지않아
쌍용차 평택, 현대차 울산 등
후 업계 공장 잇따라 멈춰

중국 공장이 가동 재개 '약속
의 날'을 앞두고 있지만, 신종 코
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
기화되면서 가동이 쉽지 않을 것
이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
다. 일단은 무리해서라도 공장을
가동하려는 분위기지만, 얼마나
빨리 복구될지는 미지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에 생
산 기지를 둔 글로벌 기업들 상당
수는 10일부터 재가동을 선언한
상태다. 테슬라와 애플 아이폰을

만드는 폭스콘 등이다. 삼성디스
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LG화
학과 SK이노베이션 등 공장을
멈췄던 국내 기업도 10일부터 생
산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현지 공장도 생산 재개가 가
시화됐다. 국내 업체가 생산 재
개를 꾸준히 요구하면서 일부
공장이 시범 가동에 돌입했고,
10일부터는 정상 가동을 기대하
고 있다.
그러나 공장을 재가동한다고
생산량을 바로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정상
적으로 가동하기까지는 빨라도
수주가 지나야한다는 것.
이유는 현지 상황이다. 당장
신종 코로나가 여전히 창궐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모두 복귀
시키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10일까지 연휴를

연장하라고 지시했고, 일부 지
역은 공장 가동도 연기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발원지인 후베이성과
우한 지역은 다른 지역과 교통
이 차단된 상태다. 다른 곳에서
이동한 주민들이 14일간 격리시
키는 등 새로운 긴급 조치도 발
동했다. 대상 근로자만 2억8000
만명에 달한다고 전해졌다.
근로자들이 현장으로 얼마나
복귀할지도 의문이다. 신종 코로
나 감염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
에서 감염자가 확대 중인 데다 감
염 의심자도 적지 않아서다.
감염 예방 조치도 한층 강화된
탓에 생산성을 끌어올리기도 어
렵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공장을 재가동 하는데 앞서 새로
운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예
컨대 광저우시는 직원들에 보호

장비를 지급하고 매일 체온을 측
정함과 동시에, 직원 소재를 모
두 문서화하라고 지시했다.
가동 재개가 어려워진 곳도
있다. 선전과 정저우에 있는 폭
스콘 아이폰 공장은 보건 전문
가들로부터 감염 위험이 크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공장 가동을
추가로 연기했다.
자동차 업계도 잇따라 공장
을 멈춰세웠다. 쌍용차 평택 공
장과 현대차 울산 공장 및 전주
공장 일부가 지난주 라인을 전
면 중지한데 이어 기아차도 10
일부터 화성과 광주 공장 생산
을 잠정 중단한다. 르노삼성차
동차도 11일부터 14일까지 문
을 닫기로 합의했다. 도요타와
폴크스바겐 등도 공장을 멈춰세
워야하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김재용 기자 juk@

재계, 코로나 피해 협력사와 상생

현대차, 공장 휴업 조치에
협력업체에 긴급자금 1조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 등 국
내 주요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상생 경영에 속도를 내며 위
기에 빠진 협력회사 지원에 집중
하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국내 완성차 업체 중 현대차그
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제
로 공장에 휴업 조치를 내렸지만
이같은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협
력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
조원대 긴급자금 지원에 나서는
등 자동차 생태계 파괴를 막기위
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
다. 현대차그룹에 이어 삼성도
조업 중단과 부품 조달 등으로
위기에 빠진 협력회사의 경영안
정을 위해 2조 6000억원 규모의



중국 산시성 시안시에 있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공장 라인. /뉴시스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 기
업들은 현지 정부 정책에 따라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현대차그룹·삼성 협력사 상생
경영 속도
중국 현지 생산으로 자재와
부품을 공급받는 국내 제조업체
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
을 맞았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